

● ● ● ● 협회소식 _ 제9차 2008년 정기총회 성료

● 협회신임 회장에 이범용 대표 선임



ESCO협회 '제9차 2008년 정기총회'가 지난 2월 14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에는 ESCO협회 36명이 참석했으며 유제인 전 회장의 3년간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협회장으로 에너지솔루션즈 이범용 대표가 선임됐다.

이와 함께 임원인사도 승인했다. 신임부회장에는 황건희 삼성에버랜드(주) 상무, 유광환 (주)케너텍 전무, 최영수 영평기계설비(주) 대표가 부회장으로 선임됐으며 기존 이사진에 양대식 (주)테크윈 상무와 이종암 포철기연(주) 상무, 오관준 (주)도암엔지니어링 대표를 신임 이사로 추가 선임했다.

이와 함께 2007년 사업실적보고와 2007년도 결산서 승인 등이 진행됐으며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승인 및 정관개정(안), 임원선임(안) 등 기타 심의 안건 등이 심의됐다.

이날 신임 협회장으로 선임된 이범용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부담감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ESCO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회원사간 정보공유를 통한 기술력 향상,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으로 ESCO시장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협회의 지역그룹별 전담반을 편성해 회원사간 사업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토록 하고 무엇보다 현장중심의 생생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3년의 임기를 마감한 유제인 전 협회장은 "이제 에너지절약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요소가 돼 가고 있고 이 같은 변화된 환경에 따라 우리 ESCO의 역할도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ESCO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라고 말했다. 또 "지난 3년간의 임기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 아쉬움은 뒤를 이을 집행부가 더욱 충실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의 말을 했다.

유제인 전 협회장은 협회의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난해에도 적극적인 회원사 유치로 14개의 회원사를 유치했으며 2008년 현재 정회원이 62개사, 특별회원이 6개사로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자체투자실적 인정의 경우 협회의 신청접수의 독려로 41건의 인정서를 발부했다. 또 서울산업대와 폴리텍1대학과 MOU를 맺고 ESCO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사업을 실시했으며 CEO포럼 등 많은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총회에서 협회 고근환 사무국장은 올해 4개의 사업 목표를 발표했다.

첫째로 ESCO 대표기관으로 협회위상 강화, 둘째 지식서비스산업 유망업종 역할수행, 셋째 ESCO업계 지식기관 역량강화, 신규사업 창출이 그것이다.

올해 사업목표에 대해 고 국장은 “ESCO 우수인재육성과 기술수준강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정부의 탄소펀드 등 재원다양화에 맞춰 ESCO시장 성장 기반

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ESCO 관련정보와 자료구축시스템마련으로 업계 지식강화는 물론 협회의 재정적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신규 사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 ● ● ● 협회소식

● ESCO사업 투자설명회 개최 건



협회는 지난달 19일 강남구청(청장 맹정주)과 함께 ESCO사업 대상시설 기초진단 결과에 따른 ESCO사업 투자설명회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강남구 내에 위치한 1만㎡이상 일반건축물 226개소에 건물에너지 절약을 위해 ESCO사업을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이날 설명회는 강남구 내에서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8개 사업소 건축주와 8개의 ESCO사업사가 참여했다.

협회는 이번 설명회에서 ESCO사업 지원제도 안내 자료를 배포했으며 설명회 참여시설당 1

개 등록업체를 편성(절감가능분야 우수? 전문업체)했다.

협회와 강남구는 이번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10여개 사업장씩 2주 간격으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기초진단에 근거한 이번 투자설명회 개최로 ESCO사업 참여시설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지역별 ESCO간담회 개최 계획

협회 회원사간 분야·업종별 업무협력 및 유대관계 강화하고 ESCO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 체제 구축, 형식적 차원이 아닌 실질적인 해결 방안 논의를 위한 지역별 ESCO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협회는 이 간담회에서 나온 결과를 활용한 대정부 건의와 회원사의 권익 보호, ESCO 핵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역별 ESCO간담회는 그룹별 위원장을 선정해 월별 간담회가 개최된다.

- 서울지역에 소재한 회원사(ESCO 종합분야 15개사) 대상 간담회(5월)
- 서울지역에 소재한 회원사(건물,아파트 개보수분야 5개사) 대상 간담회(6월)
- 서울지역에 소재한 회원사(소형열병합발전 분야 8개사) 대상 간담회(6월)
- 경기·인천 지역에 소재한 11개 회원사 대상 간담회(7월)

기타지역에 소재한 회원사(9개사)들의 경우 지역별로 회장단이 직접 수시 내방해 ESCO 경영상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 이범용 협회장 기자간담회 개최

협회는 지난달 12일, 역삼동 소재 대려도에서 신임회장 인사와 협회 발전 방향을 전하기 위해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범용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회원사 증대방안과 ESCO사의 벤치마킹, 세미나, 회원사간의 컨소시엄 구성 등 올해 협회의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회 사무실 이전·확대 등 비회원사 유치관련 방안 등을 얘기했다.

●●●● 자체투자실적 인정 심의 결과

협회는 지난달 1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성림산업개발(주) 회의실에서 2008년 1분기 자체투자실적 인정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의는 신청 투자사업 대상 협회 기술평가 결과 인정 심의와 기술평가 시 특이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등이 이뤄졌다. 이번 심의결과 2개사 4건이 신청됐으며 5억3400만원 중 4억7000만원이 인정됐다.

●●●●●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계획

건물에너지합리화사업을 위해 협회와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협회가 협약을 맺는다.

이번 협약은 ESCO사업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기여도가 많은 건에서의 에너지합리화사업 활성화와 사회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 위해 관련기관간의 협약을 체결한다.

이 협약은 오는 4월 2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14시에 이뤄진다.

이번 협약의 합의 사항은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사의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 경쟁력 강화 토록 지원하고 전국 은행연합회는 에너지합리화사업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 자금 지원을 협조 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서울특별시 는 사업의 선도적 추진과 인센티브 등 제도정비, 기금 지원을, ESCO협회는 에너지 절약사업 효과 극대화와 성과보 증, 비용저감에 노력하는 내용을 합의한다.

●●●●● 영남지역 ESCO CEO 간담회 개최 예정

- 일시 : 4월15일
- 장소 : 대구
- 참석대상 : (주)센트비즈, (주)신일이앤씨, (주)하이맥스, (주)광영기업, (주)동서기연, (주)삼흥파워텔
- 협회 : 이범용 회장, 고근환 전무
- 내용 : 협회 회원사간의 업무협력 및 유대관계강화
지방 ESCO사의 애로사항 청취